

유망 중소기업 美 진출 지원

전북테크노파크·도·카이스트 함께... 글로벌 우수기업 13곳 선정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카이스트와 함께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기업 13개 회사를 선정해 19일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업체는 대림씨앤씨(주), 대영엔지니어링(주), 대우전자부품(주), (주)세움, (주)에

스켈코어, (주)아이에스테크, 에너지엔(주), (유)원진알미늄, (주)정식메밀칼, (주)진우에스엠씨, (주)콜메이커, (주)티앤지, (유)한성산기 등이다.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시장정보 고서 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미국 고객과 유통망 발굴, 인증·지적 재산권 자문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제 정치·경제가 요동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전북기업이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건강기능식품 '부스트' 3종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독성로 이마트 성수점에서 어원 벨프(왼쪽 네번째) 네슬레코리아 사장과 김양드레 노르드비 상무, 홍정표 상무 등이 영양보충 음료 '부스트'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시장진출위해 '사업화신속지원' 사업 추진나서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자동차기술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도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이 협의체로서 참여한다.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은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분석,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기술마케팅, 자금지원 해소 등 사업화의 모든 과정을 기술사업화 협의체와 협동하여 지원한다. 전북TP 백두옥 원장은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은 전북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창조경제 실현과 글로벌 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접수는 수시로 진행하며, 공고문 및 신청서는 전북TP 홈페이지(www.jt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TP 홈페이지(www.jtpa.or.kr)에서 참조하거나, 기업지원단(063-219-2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구직자 60% "입사 포기 경험 있어"

사람인 설문결과... 중소기업 합격 후 회사 분위기가 다른 점이 주원인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입사 포기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8%가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지원자는 '여성'(62.5%)이 '남성'(55.6%)보다 조금 더 많았다. 입사 포기를 결심한 횟수는 평균 2.2번이었으며, 입사를 포기한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이 73.1%(복수응답)로 대기업(10.6%)의 약 7배에 달했다. 해당 기업에 지원했던 이유는 '일단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서'(41.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직무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39.3%), '합격 가능성이 높아서'(21.5%), '안정성 있어 보여서'(20.8%), '변절 경험을 쌓기 위해서'(15.8%), '연봉 조건이 좋아서'(15.1%), '경력 관리에 좋을 것 같

아서'(14.5%),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서'(11.3%), '부모님 등 주위에서 입사를 권해서'(5.9%) 등이 있었다. 합격을 하고도 입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회사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39.5%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직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서'(35.5%), '연봉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32.3%), '변절권의 태도가 불쾌해서'(30.5%), '계약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26.2%), '교통편 등 출퇴근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24.4%), '입사하려니 눈이 너무 낮춘 것 같아서'(18.1%), '다른 기업에 합격해서'(13.5%) 등을 꼽았다. 입사 포기 의사는 '전혀 연락'(64.8% 복수응답)을 통해 전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30.2%), '직접 방문'(11.5%), '인사담당자 이메일'(7.9%),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림

(6.6%) 등이 있었고 5.7%는 입사 당일 잠적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2명(15.3%)은 입사 포기를 후회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구직기간이 길어져 지쳐서'(58.8% 복수응답), '결국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45.9%),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35.3%), '취업 후 이직이 나올 것 같아서'(22.4%), '눈높이를 그때보다 더 낮춰서'(17.6%), '말고보니 알짜기업 같아서'(12.9%) 등이 있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합격 후 입사 포기는 본인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나 다른 지원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인 만큼 지원하기 전 충분히 고민하는 것은 물론 합격한 후에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광영기자

전주상공회의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실무 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19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교육장에서 도내 기업체 경리·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 임직원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올해 달라진 법령 및 신고제도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 등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제반 사항이 다뤄졌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조회요령, 전자신고 및 납부관련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신광영기자

전주서 모범 여성 경제인 포상 행사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개최... 도지사·기관장 표창 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는 19일 전주르원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17주년 기념식 및 모범여성경제인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영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성기업의 동력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성경제인의

발자취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여성경제인으로 (유)이리울수산(대표이사 박금옥) 등 4개업체가 도지사 표창을 그 외 14개업체가 전주·익산·군산 시장장을 비롯한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신광영기자

제품개발·시제품 제작 전문교육

전북중기청내달부터 12월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교육비, 교재 및 실습재료, 장비활용(전북시제품 제작소)이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자는

수료증도 수여한다. 교육일정은 총 4차에 걸쳐 시행하고, 각 차수별로 원하는 시기에 맞춰 교육시작 2~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교육생의 궁금한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순창군-전북테크노파크,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상담

순창군이 지난 18일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를 초청해 기업운영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테이블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영산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동원 부군수와 전북테크노파크 김용배 기업지원단장, 한국씨엔티(주) 이동호 순창공장장, 주식회사 한보요업 허기동 전무 등 기업인 17명이 참

석했다. 이날 비즈니스테이블은 기업인들의 전북테크노파크 전문 인력들이 나서 기업인들은 재무·회계, 인사·노무 관리, 품질향상, 마케팅,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해 지역 기업들이 현황을 진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신동원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기 및 내수시장 침체, 구인난 등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

이 듣고 있다"면서 "우리군에서도 관내 기업을 운영하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내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배 지원단장은 "이번 비즈니스 테이블 개최를 통해 순창군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며 "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 성장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KT전북본부, 도내 복분자 931톤 판로 확보 위해 총력

재고와 출하량량 등 도내 복분자 931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참여했다. 특히 KT전북본부는 도내 복분자 농가들의 시름을 공감하고 즉각 구매 지원에 나섰다. 전북본부 전 임직원 가족 및 지원홍보는 물론 KT조직 내 전 지역 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복분자 구매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약 15일간 의 활동으로 복분자피우치 281박스과 생과 78박스가 구매로 이어졌고 모두 1,000만원에 달하는 농가 매출을 도왔다. 오민수 본부장은 "전북도민의 어려움은 KT전북본부의 어려움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민의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국민기업으로서 KT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자자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도내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